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의 건축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박람회 출품주택과 관계를 중심으로 -

정 순 영
(동경대학 생산기술연구소 박사연구원)

주제어 : 근대주택, 주택개량, 주택개선, 조선박람회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박람회는 근대 사회의 축도이자, 복합적인 문화장치였다.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에 의한 생산물이 선전되고 소비되는 시장이었고, 한편으로 근대인들에게 근대의 사회, 문화를 계몽하는 교육의 장이었으며 동시에 오락과 유희의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박람회의 각 기능이 분화/상설화되어 백화점과 견본시(見本市)로, 그리고 다양한 교육시설로, 놀이동산(amusement park)이나 테마파크 등으로 정착되어 이어지고 있다.

박람회는 당대인의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계몽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에서도 1922년 평화기념 동경박람회(平和記念東京博覽會, 이하 평화박람회)의 ‘분카무라(文化村)’와 1929년 시정이십년기념 조선박람회(始政二十年記念朝鮮博覽會, 이하 조선박람회)의 출품주택은, 1920년대 일본과 한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근대 생활양식과 이른

바 ‘주택’이라는 주제를 실물로써 전시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라이텔과 그린할그의 박람회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¹⁾ 박람회의 보이지 않는 배경에는 제국주의 정치학이 깔려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박람회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외면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박람회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는 근대 정치학, 사회학, 미술사, 건축사 등 각각의 관점에 따라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본과 함께 고찰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과의 관계에 입각하여, 주택개선안과 주택개선안의 박람회 출품주택을 살펴보고,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조선박람회 출품주택

1) Rydell, Robert W., All the World's a Fair : Visions of Empire at American International Expositions, 1876~1916,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Greenhalgh, Paul, Ephemeral Vistas : the Expositions Universelles, Great Exhibitions and World's Fairs, 1851~1939,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8 논문

은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에 대하여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일본의 박람회 출품주택과 함께 고찰함으로써 당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박람회의 통시적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박람회에 관한 선행연구는, 한국의 박람회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공시적 연구를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일본의 박람회와 함께 고찰함으로써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박람회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기초적 연구에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의 설정

주요 고찰대상으로는 조선박람회와 동시대라 할 수 있는 평화박람회의 출품주택과, 동년 오사카(大阪) 근교의 미노오(箕面) 사쿠라가오카(櫻が丘) 주택개조박람회(住宅改造博覽會, 이하 주택개조박람회)의 출품주택이다.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박람회 개최 전후의 주택개선안들을 살펴보고 출품주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한국 내에서 주택개선에 관한 움직임을 주도했던 조선건축회와, 조선박람회 이후에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박길룡의 주택안도 참고로 할 것이다.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주택개선안은,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한국인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 이를 박람회 출품주택과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개선안 논의에 치우치지 않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둘로 쪼개어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식민지적 상황하의 주택개선안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안성호/김순일(1997)²⁾의 일식 주택의 영향에 관한 연구나 이경아/전봉희(2005)³⁾의 일본 문화주택의 연구에서 나아가, 식민지 중중국과 식민지 사이의 주택개선 내용과 의미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근대 한국의 주택개선안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로는 박람회 출품 주택을 통하여 주택이 계몽의 대상에서부터 변용되어 가는 과정을 해석하고자 한다. 서귀숙의 연구(2005)⁴⁾에서는 조선박람회의 건축계획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여기서 나아가, 일본의 박람회 출품주택과의 비교를 통하여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할 것이다. 주택은 단순히 생활양식 계몽의 대상만이 될 수 없고, 주택은 생산품으로써 소비될 상품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근대 주택의 개선안으로써 제시된 박람회 출품주택이, 근대 생활양식의 계몽의 실천적 수단에서 주택 광고용 상품으로 변용하는 과정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의 성격을 짚어 보는 것을 두 번째의 목적으로 한다.

본문의 각장에서는 박람회에 전시된 주택의 변용을 읽어 내기 위하여, 첫째, 일본과의 관계에 입각하여 일본의 주택개선안 논의 전개와 박람회 출품주택을 함께 고찰하고, 둘째,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의 기획과 그 경위, 출품 규정, 그리고 출품과정과 각 출품주택의 건축적 특성을 분석하여 주택개선안과의 관계를

2) 안성호, 김순일, 「1930년대 한국 근대주택에 나타난 속복도형 일식 주택의 영향: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 개량안과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주택평면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6권제2호, 1997년6월.

3) 이경아, 전봉희, 「1920년대 일본의 문화주택에 대한 고찰: 1922년 평화기념동경박람회 문화촌과 문화주택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1권제8호, 2005년8월.

4) 서귀숙, 「1929년 조선박람회 출품주택 개최경위 및 평면고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제3호, 2005년6월.

밝히며, 셋째, 이를 통하여 조선박람회 출판주택의 성격을 분석해 내고자 한다.

한국에 있어서의 주택개선안은 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발표되었다. 특히 박람회 출판주택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던 조선건축회의 기관지인 朝鮮と建築를 중심으로 주택개선안에 대한 논의와 실천으로써의 박람회 출판주택을 아울러 분석하고자 한다.

2. 예비적 고찰

2-1. 일본의 주택개선 운동의 개관과 흐름

일본에서의 주택개선에 관한 담론은, 1904년, 일본건축학회 기관지인 『建築雜誌』에 시가 시게츠라(滋賀重列)의 『住家(改良の方針について)』가 4편 연재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집’ 혹은 그 개량에 관한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⁵⁾ 시가의

개선안은 모두 17절로 나뉘어 위생, 도시와 공공성, 가족 내의 프라이버시, 교양/교육 등을 다루고 있으며, 개선된 주택 안에서 근대인의 소양이 길러지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본격적인 개선안 모색과 주택개발은 하시구치 신스케(橋口信助)⁶⁾에 의해 설립된 주택개량회(住宅改良會)와 문부성(文部省) 지원으로 조직된 생활개선동맹회(生活改善同盟會)⁷⁾에 의해 주도되었다. 우선 이 두 축을 살펴보자.

주택 개선 움직임을 실천으로 이끌었던 것은 하시구치였다. 미국에서 주택지 개발 경험이 있던 하시구치는 1909년 11월 일본으로 귀국하여 미국식 주택을 주조로 하는 주택전문 건설회사 아메리카야(아 <그림 1> 하시구치 신스케



5)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시가 시게츠라, 『住家(改良の方針について)』(建築雜誌, 일본건축학회, 제194권(1904.2, pp. 12~15), 제196권(1904.4, pp. 3~6), 제199권(1904.7, pp. 15~18), 제202권(1904.9, pp. 1~4)). 참고로, 시가는 미국에서 유학하였다. 일본에 있어서 주택의 개량에 관한 논문으로는 처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츄카모토 야수시(塚本靖), 『住家の話』, 建築雜誌, 일본건축학회, 제199권(1904.7, pp. 18~31). 츄카모토(1869~1937)는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귀국 후에는 동대학의 교수로 많은 건축가를 양성했다. 1910년 영일박람회에 영국으로 파견된 바 있다. 야바시 켄키치(矢橋賢吉),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가옥 개량담(本邦における家屋改良談)』, 建築雜誌, 일본건축학회, 제203권(1904.10). 야바시(1869~1927)는 동경제국대학 조가학과를 졸업하고 대장성(大藏省) 기사가 되어 관료 건축가로서 활동하였다. 1908년 구미 건축을 시찰하고 돌아와 일본제국의회 의사당 건축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에 제시된 주택개선론의 공통점은, 첫째, 주택의 구조와 위생설비에 관련하는 기술적 문제, 둘째, 생활사상에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확보 또는 주부 노동의 경감 문제, 셋째, 좌식 생활의 문제, 넷째, 주택건설 및 경영상의 경제성에 관한 문제, 이상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오타 히로타로(太田博太郎) 편, 『住宅近代史:住宅と家具』, 東京:雄山閣出版, 1969.)

6) 하시구치 신스케는 1870년 3월 16일 미야자키 현 출생으로, 33세 때(1903년)에 미국 시애틀로 건너갔다. 시애틀에서 양복 및 잡화점 경영에 성공하여 시애틀 일본인회장을 맡았다. 콜롬비아 강 인접 대지를 구입하여 가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인 이민을 주선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미국의 극동정책과 대립되어, 일본으로 귀국하였고(1909년),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식 주택의 도입을 계획, 실천하였다.(內田青藏, 『あめりか屋商品住宅 洋風住宅開拓史』, 住まいの図書館出版局, 19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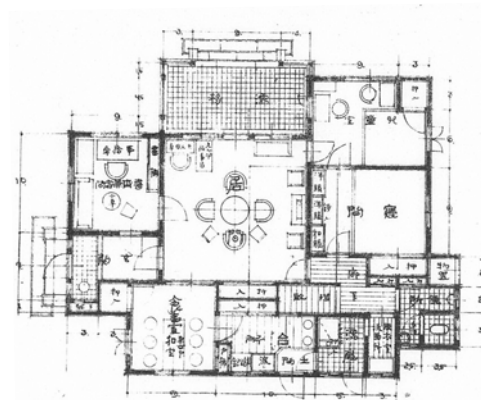
7) 생활개선동맹회는 당시 동경제국대학 교수였던 사노 토시타카(佐野利器, 1880~1956)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콘 와지로(今和次郎, 1888~1973)를 비롯한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하고 있었다. 주택개선동맹회는 서양식 주택 보급의 일본도에서, 당대인들의 생활을 염두에 두고 본질적인 개선을 통한 주택개선을 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했다.

참고로 사노 토시타카는 독일을 유학하고 동경대학에서 건축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구조학의 대학자이면서도, 주택 개선에 관심을 갖고 『住宅論』(東京:文化生活研究會, 1925)과 같은 저서를 남겼다. 콘 와지로는 민속 및 민가를 연구한 학자로, 와세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22년에는 한국에 건너와 민속조사를 수행하였다(조선총독부 위촉). 일본생활학회회장, 일본건축사회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장 서베이를 통해 사회현상을 읽어내는 학문체계인 ‘고현학(考現學)’을 제창한 학자로도 알려져 있다.

めりか屋)를 설립하였다. 그는 일본에 있어서 근대 주택의 모델을 미국의 교외 주택으로 상정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하시구치는 토키와마츠(常盤松) 여학교의 교장이었던 미스미 스즈코(三角錫子)와 뜻을 모아 주택개량에 대한 계몽활동을 목적으로, 주택개량회를 설립하고, 주택전문 잡지 『住宅』⁸⁾을 발간하였다(1916년 8월). 주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단체인 주택개량회는 주택의 서양풍화를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생활양식은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고 주택이라는 하드웨어만 바뀐 것이어서, 이후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서양식 생활양식이 혼재된 ‘이중생활’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주택개량회는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의해 이른 시기부터 주택개량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 생활개선동맹회’는 일본 문부성의 지원을 받아 정부 외곽단체로 설립되어(1920년), 생활개선에 관한 국민계몽을 이끌어 갔다. 그 내부에 주택개선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조사 및 연구의 결과 ‘주택개선육대강령(住宅改善六大綱領)’을 발표하였다. 강령의 내용으로는, 1) 의자식 도입, 2) 간단 견고한 가구의 도입, 3) 접객 위주에서 벗어나 가족 본위 지향, 4) 다다미 폐지와 마루 설치, 5) 가정의 생활양식과 사회에서의 생활양식 일치, 6) 양식화(洋式化)의 여섯 가지이다. 이 여섯 가지 요점은, 주택개량회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결국 ‘서양식화’에 수렴된다. 주택개선조사위원회 본래의 취지는, 문부성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학교 교육을 통하여 개선운동을 널리 계도하는 데에 있었고, 가정을 근대적 사회에



<그림 2> 평화박람회 생활개선동맹회 주택안

(출처: 『住宅』, 第七卷第三号(1922.3), p. 66)

중앙의 거실을 중심으로 남면에 테라스(본문에는 누레엔(濡縁, 빗마루와 유사)를 두어 일조와 통풍을 확보하였고, 각실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으며, 의자와 테이블의 입식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을 사용하는 부엌, 화장실, 욕실을 한 곳에 집중시켜 설비의 효율도 도모하였다. 이마의 한쪽에는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고, 이 벽난로에 의하여 이마 오른쪽의 침실의 난방을 취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편입시키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⁹⁾

개선주택의 주대상은 이른바 중산층 혹은 중류층으로 불리는 이른바 엘리트 계층이었다. 근대식 교육을 받고, 근대 사회에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 잡은 중산층은, 에도 시대의 가정과 많은 면에서 달랐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의자식 생활을 몸으로 익혔고, 서양의 많은 문물을 접하였으므로 거부감이 거의 없었다. 이들에게 새로운 주택 모델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와 함께, 개선주택안은 점차 근대 주택의 모델로써 다듬어지게 된다.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주택 개선에 관한

9) 중산층 가정의 형성과, 국민화 과정을 함께 탐색한 연구로는 코야마 시즈코(小山静子), 『家庭の生成と女性の國民化』(東京: 勤草書房, 1999년)가 있다. 덧붙이면,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틀로써는 행정의 근대화를 이루어나가는 한편, 근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국민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8) 잡지 『住宅』 은 월간지로 1943년 12월까지 발간되었다. 일본 최초의 주택 전문지로서 근대 주택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움직임을 정리하면, 주택개량회와 아메리카야 주도의 실천안 모색과 생활개선동맹회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토대의 마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전자의 주택개량회는 「住宅」을 통해 그 개선론의 전개와 계몽을 주도해 가는 한편, 아메리카야를 통하여 개선안의 주택을 건설하며 전파를 피하였고, 후자의 생활개선동맹회는 관(官)이 계도해 나가는 특성을 보이며 주택 문제에 있어서의 각 학계의 연구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었다. 즉 이 두 갈래는 실천과 이론의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택개선에 관한 계몽과 실천의 움직임은 평화박람회(1922년 3월~7월)의 실물 견본주택인 ‘분카무라(文化村)’¹⁰⁾에서 성과물로서 집약되어 나타난다. 분카무라는 평화박람회에 설치되었던 견본주택 단지로서, 회장인 우에노 공원에 두 곳으로 나누어 건설되었다. 이는 근대 주택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일본건축학회가 기획한 것이었다.¹¹⁾

2-2. 근대 한국의 주택개선 개관

한국에서 주택개선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된 것은 1920년대 초부터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미디어가 창간, 보급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도해 나갔으며, 한 편으로 조선건축회가 조직되어 위생담

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주택의 물리적 개선안이 논의,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조선건축회가 발간했던 朝鮮と建築의 발간 취지문은, 조선건축회가 주택 개량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취지문을 보면, 근대 문명이 발달하는 추세에 비추어 조선건축계의 건설한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적 생활개선과 조선의 기후풍토에 맞는 주택의 보급에 힘쓰며, 또 한편으로 근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건축 전반의 체계화 및 개선을 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조선건축회가 근대라는 시대 조류와 조선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주택 모델을 개발할 사명감을 갖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의 朝鮮と建築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초기에는 일본식과 양식의 혼재형식인 ‘화양절충(和洋折衷)’이 주된 테마였다. 일본과는 다르게 주택의 개선안이 서양식을 모델로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1920년대 생활개선동맹회에 의해 일본의 생활양식에 맞는 화양절충형 주택개선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며, 조선건축회는 이러한 일본의 동향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문화주택’이라는 것도 화양절충형 주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충분한 이론적 검증을 거쳤던 반면, 조선건축회는 초기의 취지와는 다르게 조선이라는 문화, 지역적 상위를 받아들이

10) 이경아·전봉희(2005)의 선행연구에서 분카무라의 번역어로써 ‘문화촌’이라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평화박람회에 출품되었던 실험형의 주택단지라는 고유성을 살리기 위하여, 아울러 한국에서 통용되는 ‘문화촌’과 구분하기 위하여 ‘분카무라’라고 하였다.

11) 평화박람회가 개최되기 1년전인 1921년 3월, 일본건축학회 학회 실무자 협의회에서 박람회의 건축 출품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주택 출품이 결정되었다. (우치다 세조(内田清藏), 『建築學會の活動からみた大正11年開催の平和記念東京博覽會文化村に關する一考察』,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제529호, 2000년 3월, pp. 263~270.)

12) 발간취지문 중 주택 개량 문제에 관한 부분만 발췌해 보면, ‘近代文明年發達の趨勢に鑑み、全鮮建築界の堅實なる進展を期せんが爲め内鮮の文化的的生活改善と共に氣候風土に適應せる住宅建築の普及を計り、以て社會文運の發揚に資せんと欲し半島在住の建築技術家結束して今春朝鮮建築會の設立を全うしたり。(…중략…) 本會の一事業として多大の意義を存し、或は都市計畫に關し、或は建築法規に關し、或は住宅問題、規格統一、耐火防寒の普及、朝鮮式住宅の改善其他大小の研鑽功究は咸な本誌に依て社會に發表せらるべき也。(이하 생략)’이라 되어 있다. 『發刊の辭』, 朝鮮と建築, 第一号, 1922년 6월 25일 발행.

지 않은 채, 피상적인 담론의 수용 및 나열을 반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온돌 난방에 관한 관심은 높아, 여러 개선안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의 혹한 기후에 대해 주택 난방 설비에 관한 여러 방법이 모색되는 가운데, 서양식의 난로, 페치카 등을 연구,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와 동시에¹³⁾, 한국 전래 온돌의 난방성능에도 착목하여 온돌 개선안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였다.¹⁴⁾

일본 주택개선안의 주대상을 중산층으로 상정하고 연구가 진행되어온 반면, 조선건축회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하여, 일본의 예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한 소주택 개선안들도 제안되었다. 식민지라는 상황 하에서 일본과 같이 엘리트층으로 구성된 중산층이 형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주택문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보다 양적으

로 큰 서민대상으로 하는 25평 미만의 소주택안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주택개선안에 있어, 지역성이 드러난 부분은 ‘온돌’의 난방방식에 관한 것뿐이었다. 조선건축회가 일본인 건축관련 인사가 중심이라는 한계도 있을 것이나 식민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개선강령과 같은 진보적인 개선지침이 제시되기 보다는, 지역의 물리적 조건(여기서는 특히 혹한기후)에 대한 개선안들이 제시되는 보수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건축회의 개량안도 조선박람회 이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전까지는 서양식이 기본이 되는 화양절충식 주택안이 개량안의 위주가 되었으나, 이때부터 한국이라는 ‘지역성’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조선건축회는 ‘주택문제연구회’를 발족하는 한편, ‘주택도안’ 모집을 통해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1937년에는 ‘조선풍’ 주택 도안 모집을 통해 한국의 풍토에 맞는 주택안 개발에 힘을 기울였다.¹⁵⁾ 한편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탐구하는 등¹⁶⁾, 한국의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갔다.¹⁷⁾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주택 개선의 움직임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1920년에 발간된 동아일보, 조선일보라는 매체였다. 한글로 발행되는 이 두 신문은 당시 한국인에게 읽혀지면서, 한국인 건축가의 개선 주택안이 계몽되기 시작하였다.

13) 난방의 형식에 있어서 온수난방 방식이 선호되었다. 타타미나 온돌은 거의 모든 생활이 바닥에서 이루어졌으나, 주택 개선안에서는 좌식 생활의 비위생성을 들어서 이것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채난 방식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러시아의 페치카였다. 온수난방보다 페치카가 난방기구로서 부각된 이유는, 혹한에서 온수난방의 경우 온수 파이프가 동파할 우려가 있지만, 페치카는 열기 복사방식이기 때문에 동파할 우려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페치카의 개량을 통해서 2층까지 열전도가 가능해지면서, 페치카의 설치가 확산되었다.

14) 『朝鮮と建築』에 온돌에 관한 글이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잡지가 창간된 3년 후인 1924년 제3집 제2호이다. 쿠라시키 방희화사에 의사로서 근무하던 후지(富士貞吉) 의학박사가 『朝鮮家屋(溫突室)の衛生學的研究』라는 글을 씀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온돌에 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온돌의 개량 방안이 제안되고(『溫突の改良に就て』, 『朝鮮と建築』(제5집 제11호, 1926년 11월)와 『溫突の煙突調査』(제8집 제1호, 1929년 1월) 등), 이후에도 조금씩 온돌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제19집 제3호(1940년 3월)은 그간의 연구 성과의 집약이라 할 수 있는 ‘온돌특집호’가 발간되었다.

건축역사연구 제17권 2호 통권57호 2008년 4월

15) 서귀숙, 「조선건축회 활동으로 보는 주택근대화: 1922년~1944년 『朝鮮と建築』에 게재된 4개 주택 설계현상모집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제1호, 2004년 2월.

16) 『朝鮮の生活樣式に關する座談會』, 『朝鮮と建築』, 제17집 제7호, 1938년 7월호, pp. 26~46.

17) 그러나 이즈음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시체제하에 놓인 사회적 배경 탓에, 주택에 있어서도 점차로 방공설비가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박길룡(1899~1943)은 1928년 말부터 한국인을 독자로 한 잡지 『朝鮮』, 『實生活』 등을 통하여 주택의 계획 도면과 함께 개선안을 피력해 왔다¹⁸⁾. 박길룡이 조선총독부에 기술(技手)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주택 개선에 관한 계몽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가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후부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통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박길룡은 글을 통하여, 일조와 통풍, 도시미관을 위하여 주택에 가능한 한 넓은 뜰을 둘 것과, 특히 부엌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근대화를 통하여 신분제가 철폐된 후, 가사를 돕는 사람을 두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가사노동은 주부의 전담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부엌은 노동량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합리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위생을 위해서도 상수도 설비를 갖추고 개수대(流台)를 설치, 부뚜막 위에 수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공간 절약과 움직임의 편의를 도왔다. 1930년대 후반에는 한옥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하고 있어, 근대건축가로서 한국의 주택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길룡의 주택안은 20평 내외의 소규모 주택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것은 잡지나 신문과 같은 매체가 한국인을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조선건축회가 설정하였던 30평대의 중규모 주택보다는 소규모 주택 개선에의 필요성이 보다 심각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형식면에서는 외관은 양풍(洋風)으로 하고, 내부는 일본식과 한국식을 절충한 형식을 취하였다. 『朝鮮と建築』의 글을 통해서¹⁹⁾,

1930년대에는 이미 도시 중산층에 일본식 생활양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녁 식사에 사시미와 스키야키를 먹기도 하는 등, 의식주 생활 전면에 차츰 일본식이 침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박길룡의 주택안에서 일본식과의 절충이 시도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요인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동진(1899~1980)은 동아일보의 「우리 주가에 대하여」라는 연재 기사를 통해 실용성을 우선시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아르누보와 같이 지역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근대적 기술로 근대화해 성공한 유럽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주택 실정과 개선안들을 짚어 나갔다.²⁰⁾

2-3. 일본의 출품주택의 전개 및 특성

일본에 있어서 주택 실물 전시의 효시는 1915년 국민신문사(國民新聞社)가 주최한 가정박람회(家庭博覽會)였다. 이 박람회는 1915년 2개월간의 회기로 우에노(上野) 시노바즈(不忍) 연못 주변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 국민신문사가 출품하였던 실물 주택은 동경대학교 교수였던 이토 츠타(伊藤忠太)가 지도하였으며, 엔도 아라타(遠藤新)가 설계를 담당하였다. 설계 주택의 대상은 중산층의 4인 가족으로, 건축규모로는 건평 44.5평, 공사비 3천 엔의 조건부 설계였다. 이때, 아메리카야도 소규모의 교외주택인 양관을 출품하였다.

출품된 엔도의 주택안을 보면, 가족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각실을 개실화하였고, 의자와 테이블을 실의 중앙에 배치한 거실(居間)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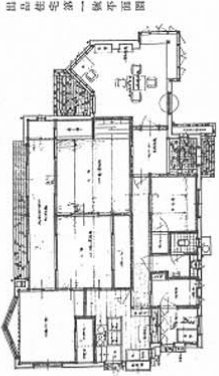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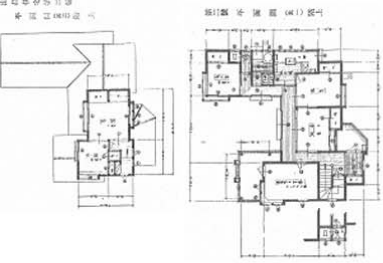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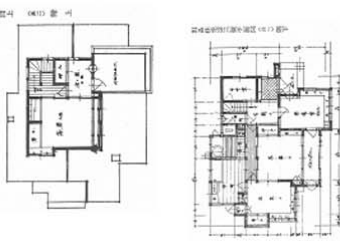
17집 제7호, 1938년 7월호, pp. 2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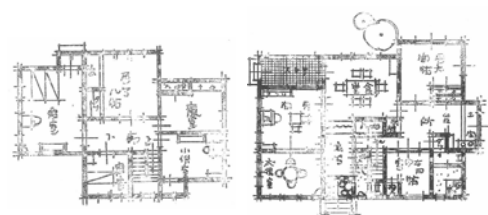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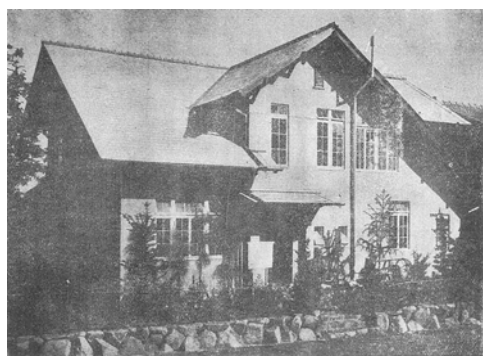
20) 박동진은 동아일보에 「우리 주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16편을 연재하였다.(1931년3월14일~동년4월5일) 그의 글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생활과 주택', '현대건축의 추세', '우리 주가의 현상에 대하여', '우리의 새 주가'에 대한 글로 짜여졌다.

18) 禹東善, 「科學運動과의 關聯으로 본 朴吉龍의 住宅改良論」,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7권제5호, 2001년 5월.

19) 「朝鮮の生活様式に關する座談會」, 朝鮮と建築, 제

[표 1] 조선박림의 출품주택 개요

| 제1호 주택 | | 제2호 주택 | | 제3호 주택 | |
|-----------------|---|---|--|---|--|
| 설계/시공 구조 연면적 | 타타구미多田組(多田工務店) 벽돌조각조 단층 33.5 평 | 미야가와구미(宮川組) 목조 이층 37.36 평 | 코테라구미(寺組) 목조 이층 33.57 평 |  |  |
| 외 관 |  |  |  | | |
| 면 적 | 5,695 원 (평당 170 원) | 5,417 원 (평당 145 원) | 4,532 원 (평당 135 원) | | |
| 건축비 | | | | | |



<그림 3> 주택개조박람회에 출품된 제니타카구미(錢高組)의 주택안

(출처: 『住宅』, 第七卷第十一号(1922.11), p. 47)
 (위: 정면 외관, 아래 왼쪽: 1층평면도, 아래 오른쪽: 2층평면도) 오사카를 주활동무대로, 막부시대부터 현재까지 건설청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제니타카구미의 건본주택이다. 주택개량안에서 제안되었던 바와 같이, 가족단위의 공간인 거실이 중심이 되고, 그 주위로 각실이 배치되었으며, 입식의 생활양식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었다.

계획하였으며, 부엌에는 개수대(流台), 수납장을 구비한 것이었다. 특히 주부의 공간으로써 부엌을 다룬 것은, 수도와 전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지고, 보다 효율적인 가사노동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합리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계몽이 피하였다.

평화박람회(1922년 3월~7월)는 처음으로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실물 전체가 전시된 박람회였다. 박람회가 개최된 우에노 공원의 두 곳에 ‘분카무라(文化村)’라고 명명된 견본주택 단지를 세우고, 주택으로서 새로운 비전의 제시를 목적으로 일본건축학회가 기획하고²¹⁾ 이상적인 주택 설계안이 도출되도

21) 평화박람회가 개최되기 1년전인 1921년 3월, 일본

[표 2] 평화박람회 분카무라 주택개요

| 번호 | 출품자 | 구조 | 규모 | 면적 1층/2층 | 평면 형식 | 평당 공비 |
|----|-------------|----------|----|-------------------|----------|----------|
| 1 | (株)あめりか屋 | 목조 | 1층 | 27 | ▲ | 200 |
| 2 | 飯田徳三郎 | 목조 | 1층 | 23 | ▲ | 200 |
| 3 | 樋口久五郎 | 목조 | 1층 | 24.66 | ● | 300 |
| 4 | 建築興行(株) | 목조 | 2층 | 26.75 15/11.75 | ● | 248.6 |
| 5 | 生活改善同盟會 | 목조 | 1층 | 25.35 | ● | 181.5 |
| 6 | 上遠喜三郎 | 목조 | 1층 | 24.5 | ● | 159.7 |
| 7 | 日本セメント工業(株) | 철근 블록 | 2층 | 31.5 17.8/13.7 | ● | 223.5 |
| 8 | 錢高作太郎 | 목조 | 2층 | 21.7 | ▲ | 209 |
| 9 | 前田錦藏 | 목조 | 1층 | 13.5 | 緣 | 167.8 |
| 10 | 小澤垣太郎 | 목조 | 1층 | 25.25 | ● | 200 |
| 11 | 吉永京藏 | 목조 | 2층 | 26.29 18.29/8 | ● | 152 |
| 12 | 宏達彌 | 목조 | 1층 | 22 | ● | 165 |
| 13 | 長島吾助 | 목조 | 1층 | 17.75 | 緣 | 251.8 |
| 14 | 島田藤吉 | 목조 | 1층 | 32.3 18.4/13.9 | ● | 19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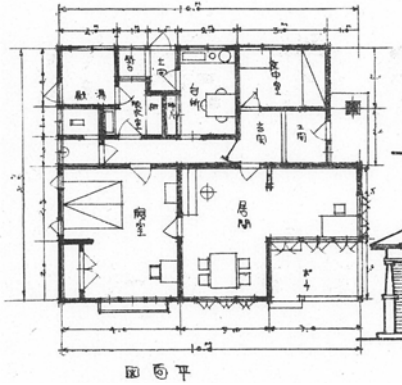
▲: 속복도형, ●: 거실중심형, 緣: 쪽마루가 통로 기능을 담당하는 평면형식(주로 소규모 주택에 해당) *평당 공비 단위: 円/평

록 도왔다.

출품 주택은 중산층 가족용 주택으로 설정하고, 중규모(25평 내외)와 소규모(20평 미만)로 계획되었다. 당시의 주택개량안을 수용하여, 가족분위의 거실을 배치하는 평면형(이하 거실형)이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속복도형 주택도 3채가 계획, 전시되었고(21.4%), 주택 건설의 현실도 보여 주었다.

실제 출품자 14명이 결정된 것은 1921년 12월로, 박람회 개최를 3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계획에서 건설까지의 기간이 촉박

건축학회 학회 실무자 협의회에서 박람회의 건축 출품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주택 출품이 결정되었다. (우치다 세조(内田青藏), 『建築學會の活動からみた大正11年開催の平和記念東京博覽會文化村に関する一考察』,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제529호, 2000년 3월, pp. 263~270.)



<그림 4> 평화박람회 아메리카야 주택안

(출처: 위-그림엽서, 일본 東北大學 도서관 소장
아래-『住宅』第七卷第三号(1922.3), p. 62)
속북도를 중앙에 두고 실들을 양쪽에 배열한 평면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각 실들은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침대를 사용하는 등, 입식을 기본으로 계획되
어 있다.

했던 관계로,²²⁾ 대부분이 전시용 가설 건축이
었다고 판단된다. 박람회 폐회 후에는 전부
철거되어 버렸고, 이축되어 활용되지는 못하
였다.

동년 오사카 근교의 미노오 사쿠라가오카에
주택개조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한큐(阪急) 미
노오 선의 사쿠라이(櫻井) 역을 중심으로, 전
철회사인 미노오 아리마 전기궤도(箕面有馬電
氣軌道, 현 한큐 전철(阪急電鐵의 전신)가 개
발을 주도한 신주거지였다. 이곳에 일본건축
협회²³⁾가 주최한 주택개조박람회가 1922년 9

22) 1922년 1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
나 실제로는 2월 하순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23) 일본건축협회(日本建築協會)는 1917년, 건축을 통해
건축역사연구 제17권 2호 통권57호 2008년 4월

[표 3] 주택개조박람회 출품주택

| 번호 | 출품자 | 구조 | 규모 | 건평 1/2층 | 평면 형식 | 공 비 |
|----|---------------|----|----|-------------------|----------|--------|
| 1 | 大阪橋本組 | 목조 | 2층 | 62 | | ● 228 |
| 2 | 大林組A | 목조 | 2층 | 59.56 | | ● 325 |
| 3 | 大林組B | 목조 | 2층 | 56.2 | ▲ | ● 200 |
| 4 | 大阪住宅經營(株) | 목조 | 1층 | 16 | ▲ | ● 230 |
| 5 | 葛野建築事務所 | 목조 | 2층 | 48.87 24.87/16 | | ● 220 |
| 6 | 片岡建築事務所A | 목조 | 2층 | 39.38 | ▲ | ● 310 |
| 7 | 片岡建築事務所B | 목조 | 2층 | 38 | ▲ | ● 260 |
| 8 | 横川工務所 | 목조 | 3층 | 65.05 | | ● 203 |
| 9 | 横田工務所 | 목조 | 2층 | 34.71 | ▲ | ● 215 |
| 10 | 田村地所部 | 목조 | 2층 | 42.30 | ▲ | ● 300 |
| 11 | 竹中組A | 목조 | 2층 | 54.04 | | ● 200 |
| 12 | 竹中組B | 목조 | 2층 | 45.88 | ▲ | ● 222 |
| 13 | 眞水三橋建築事務 所 | 목조 | 2층 | 31.1 | | ● 166 |
| 14 | 鴻池組 | 목조 | 2층 | 33.5 | | ● 193 |
| 15 | あめりか屋 | 목조 | 2층 | 55 | ▲ | ● 218 |
| 16 | 清水組大阪支店 | 목조 | 2층 | 34.77 | ▲ | ● 207 |
| 17 | 錢高組 | 목조 | 2층 | 53.75 | | ● 235 |
| 18 | 日本建築協會 1 | 목조 | 2층 | 35.5 20/15.5 | | ● 324 |
| 19 | 日本建築協會 2 | 목조 | 2층 | 35.5 22.5/13 | | ● 265 |
| 20 | 日本建築協會 3 | 목조 | 2층 | 34 20/14 | ▲ | ● 285 |
| 21 | 日本建築協會 4 | 목조 | 2층 | 36 21.5/14.5 | ▲ | ● 287 |
| 22 | 日本建築協會 5 | 목조 | 2층 | 35.25 22.25/13 | ▲ | ● 390 |
| 23 | 日本建築協會 6 | 목조 | 2층 | 35 20/15 | | ● 280 |
| 24 | 日本建築協會 7 | 목조 | 2층 | 21.5/15 | | ● 28 |
| 25 | 日本建築協會 8 | 목조 | 2층 | 22.5/13 | ▲ | ● 280 |

▲: 속북도형, ●: 거실중심형
* 평당 공비 단위: 円/평

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
되었다. 박람회에는 25동의 주택이 건설되었
고, 가구, 설비, 재료 등의 새로운 비전을 담
은 주택들이 출품, 전람되었다.

주택개조박람회가 개최되기 직전, 동경에서
열린 평화박람회의 분카무라가 사회적으로 큰

서 사회에 공헌할 것을 취지로 오사카에 본부를 두고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동경을 중심으로 한 일본건축학
회에 대항하는 비 중앙 기관으로 성격이 짙었으나, 현
제에는 건축가의 사회 발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관
지로는 『建築と社會』가 있다.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결국은 폐막과 함께 철거되어 일회성의 이벤트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반해, 주택개조박람회는 박람회 개최 동안 전람됨과 동시에, 매매를 성립시켜 폐회 후에는 직접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주택안을 바탕으로 하지만, 장래 거주자의 현실적인 요구를 예측,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평면계획을 보면 근대주택의 모델로서 추구되어 오던 거실형이 종래의 속복도형과 복합되는 경향이 짙다. 즉 이미 익숙해 있던 속복도형을 계승하면서 개선안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개조박람회의 주택은 평화박람회의 분카무라와 비교해서, 규모면에서는 약 10평 정도 큰 35평 전후였고, 단층 주택이 많았던 분카무라에 비해 25채 중 1채만을 제외한 24채가 2층 주택으로 계획되었다. 이를 통하여 주택개조박람회 주택은 주택 구입이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박람회를 통해 주택의 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시동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3.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의 개요 및 특성

조선건축회는 조선박람회에 3채의 실물의 주택 건본을 출품하기로 하고, 우선 중산층 가정을 모델로 하며, 주택 희망자를 먼저 모집하여 희망자의 요구를 반영한 주택설계안을 작성하고, 이를 박람회 기간 중에 일반공개하여 관람케 하며, 폐회 후에는 주택 희망자가 원하는 부지에 이축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주택의 규모는 30평 내외로, 가능한 한 한국산의 자재를 사용할 것도 요구되었다.

3-1. 출품 주택의 개요

제1호 주택은 한국 내에서 건축토목 업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건축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타다구미(多田組)가 계획하였다. 출품된 3채의 건본 주택 중에서 유일하게 단층이며 벽돌조적조이다. 전체 면적은 33.5평으로, 난방과 전기 설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5,695원(평당 170원)으로, 세 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제1호 주택은 일본의 전통적인 주택 형식을 계승하면서, 동쪽에 한국 전통적인 온돌실을 두고, 서쪽에 양식(洋式)의 응접실을 둔 절충안을 보여준다. 특히 응접실의 공간이 독립적으로 구획된 것은 일본의 접객위주의 주택 전통을 이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돌실의 난방은 카와카미(川上) 식 개량온돌을 사용하였다.²⁴⁾ 이 개량온돌은 열손실율을 줄이고 바닥의 열전도율을 높인 것으로, 위생적인 면에서도 보완하였다.

제2호 주택은 미야카와구미(宮川組)가 담당하였다. 목조의 2층 주택으로, 연면적 약 38평이며 공사비는 5,417원(조명과 난방설비비 불포함, 평당 145원)이다.

제2호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각실이 일렬로 배치되는 홀집형식에 있다. 이러한 형식은 일본의 전통 민가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가 있는데, 누레엔(濡縁) 또는 엔가와(縁側)로²⁵⁾ 불리는 툃마루가 통로의 역할을 담당한 평면 형태로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실에 충분한 일조가 확보되고 통풍이 원활하다. 특히 온돌실은 남북 양면에 문과

24) 川上重三郎, 「大勢はストーブよりペーチカに移った」, 朝鮮と建築, 제5집 제11호, 1926년 11월, pp. 21~22. 참고로, 카와카미는 川上式ペーチカスミレヤ(경성지점)의 대표였다.

25) 일본 민가에서 툃마루에 해당하는 누레엔과 엔가와, 상부에 지붕처마로 덮여지지 않은 곳이 누레엔, 지붕처마로 덮여진 곳이 엔가와이다.

창이 나 있어 환기가 용이하게 계획되었다.

제3호 주택은 코테라구미(小寺組)가 설계, 시공을 담당하여 출품하였다. 제2호 주택과 마찬가지로 목조 2층의 주택이며, 전체면적은 33.57평으로, 4,532원(평당 135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제1호 주택과 마찬가지로 속복도형이며, 복도를 가운데 두고 남쪽에는 응접실, 이마, 온돌방을 두었으며, 그 반대편에는 부엌, 화장실, 가정부실을 두었다. 난방은 미야자키 식 폐치카 방식을 채용하여, 2층의 손님방(客間)까지 난방이 가능하도록 설비하였다.

공통적으로 3채 모두 당시 논의되었던 개선택 계획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33평 안팎의 규모로, 남향을 하고 있어 충분한 일조 확보와 통풍을 좋게 하는 등, 위생적으로도 배려되어 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욕실, 화장실, 부엌을 집중시킴으로써 설비면에서의 효율을 높였음도 알 수 있다.

3채 모두 이마의 남쪽 면에 뿔마루에 해당하는 복도 또는 베란다(발코니)를 두었다. 이는 정원과 의 소통 면에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뿔마루는 외부와 실내를 이어주는 전이적 공간으로 이들 출품 주택에서는 남면하여 배치되어 있으므로, 선림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실의 구성을 보면, 화양절충형에 한국식 온돌을 부가한 공간구성을 띠고 있다. 3채 모두 온돌방을 1개소씩 설치하였으며, 응접실 겸 서재를 계획하고 그곳에 의자와 테이블을 두어 서양식의 생활양식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중앙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자시키(座敷)²⁶⁾와 양실(洋室)의

26) 자시키는 원래 일본 전통주택에서 응접실의 기능을 하였으나, 근대기에 들어서면 가족이 모두 모이는 거실의 기능을 띠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타타미가 깔리는 방이다.

거실(居間)이 설치되어 있고, 제2호 주택과 제3호 주택에서 보이는 것처럼 2층에 일본 종래의 손님방(客間)와 츠키노마(次の間)²⁷⁾가 설치되어 있다.

3-2. 기획에서 나타난 출품주택의 성격

조선건축회는 조선박람회 출품할 내용을 주제로 1929년 1월 31일 평의회에서 조선박람회 출품을 위한 위원들을 선정하여, 출품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29년 2월 5일에 개최된 제1회 출품위원회는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택안을 출품하기로 결정하고, 출품 규정에 관하여 협의하였다.²⁸⁾ 협의된 출품 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본주택은 중산층의 가정을 모델로 하며, 연면적 약 20평 이상 40평 이내로 하고, 주택의 희망자는 대략의 칸잡이와 주요 구조, 이축할 부지, 건축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계획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설계 도면에 관해서는 조선건축회 회원들에 의해 심사되며, 당회가 인정하는 청부업자에 의해 건설한다. 그리고 박람회 회기 중에는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전람케 하며, 폐회 후에는 주택 의뢰자가 원하는 토지에 이축하고 이축에 해당하는 비용은 청부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충당기로 하였다. 또한 재료는 한국산을 기본으

27) 주인실 또는 주실(主室)에 부속된 방으로,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에서는 거실(居間)에 연결한 개실이다. 주실과 츠키노마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후스마로 구분되어 있어 개실로서의 프라이버시는 매우 낮다.

28) 『朝鮮と建築』 제8집 제3호, 1929년 3월, p. 20. 코테라는 중류층 주택을 상중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주택을 출품할 것과 폐회 후 이를 희망자에게 불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사사는 상중하로 한다면 모두 상질의 주택을 원할 것이라 판단, 이보다 우선 주택 건축의 희망자를 모집하고 희망자의 의뢰에 의하여 가격, 설계, 자재 등을 결정하고 계획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미야자키 위원이 제청하여 출품 규정이 정하여졌다.

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출품주택의 규모를 보면, 같은 중산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평화박람회와 비교하면, 조선박람회의 주택이 다소 20~40평 사이의 규모로 여유가 있도록 기획되었다. 그러나 주택개선안의 대상이 불분명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축된 출품주택은 35평 전후로 계획되었고, 이는 주택개조박람회의 출품주택 규모와 유사한 것이었다. 즉, 중상계층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 출품되어, 초기의 기획취지와는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출품위원회는 또한 부대사업으로 국배판의 각 건본 주택의 안내 소책자를 발간하여 무료로 일반에 배포하며,²⁹⁾ 책자의 인쇄비는 책자 끝에 광고를 첨부하여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³⁰⁾ 안내책자에는 사용된 자재와 그 자재의 취급업체, 그리고 시공업체 등이 안내되었고, 출품주택 각각의 건축비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안내책자에 게재되는 내용은 곧바로 선전이 됨에 따라, 거주희망자가 원하는 토지로 이축하는 비용까지 청부업자, 자재상의 도움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해 안내책자는 박람회 출품주택의 상품성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3-3. 출품 관련자의 구성

출품주택에 관련된 인적 구성을 보면, 우선 출품위원은 모두 10명으로, 조선건축회 회장 이자 조선박람회 사무국의 건축토목과장을 맡고 있던 이와이 초사부로岩(井長三郎)와 당회

부회장이자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 설비이사를 맡고 있던 나카무라 마코토(中村誠), 이외 조선건축회의 이사였던 후노(富野繁一)³¹⁾, 와타나베(渡邊舜象)³²⁾, 타다(多田順三郎)³³⁾, 고토(後藤虎雄)³⁴⁾, 고시마(五島榮藏)³⁵⁾, 코테라(小寺忠行)³⁶⁾, 사사(笹慶一), 미야자키(宮崎吉太郎)³⁷⁾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와타나베가 병사하는 등 몇 차례 위원이 바뀌기도 하였으나, 출품위원회는 조선 내 최고의 건축기술자였던 이와이와 나카무라가 중심이 되고, 대표적 건설청부업체, 자재업체의 고위 경영자가 맡고 있었다. 즉, 출품위원회는 조선에서

31) 경성요업주식회사 전무이사로 조선건축회 이사.(조선건축회 회원명부 『朝鮮と建築』(1929.12)참고)

32) 합자회사 시미즈구미(清水組) 경성지점 지점장으로 조선건축회 이사.(조선건축회 회원명부 참고)

33) 타다상회(多田商會)를 창립하였다.(『京城市民名鑑』, 1923년) 타다상회는 이후 타다구미로 개칭, 미즈코시(三越) 백화점 신축시 공사 청부를 맡는 등, 한국에서 여러 공사를 담당하였다.

34) 철도기사로 니시모토구미(西本組) 대표로서 철도건설업에 종사, 1929년에는 고토공업합자회사(後藤工業合資會社)를 설립, 사장이 되었다. 조선토목건축협회 부회장이면서 경성요업주식회사의 이사도 역임하였다.(『京城市民名鑑』, 1923년)

35) 합자회사 長門組의 설립자 겸 대표.(『朝鮮功勞者名鑑』, 1935년)

36) 코테라구미의 설립자 겸 대표로, 코테라구미는 조선신궁, 한강(용산)축제공사, 신의주형무소 신축공사, 경성부청 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사를 담당하였다. 1929년 12월 16일자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여 미키합자회사(三木合資會社)로 개편하였다.(『朝鮮功勞者名鑑』, 1935년)

37) 미야자키(宮崎) 식 스토브 전매특허를 갖고 경성에 본점을 두고 만주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활동한 사업가. 미야자키 요시타로(宮崎吉太郎)는 카라후토(樺太. 현 사할린)에서 토목건축사업을 하면서 벽돌제조소를 운영하였다. 이즈음에 제래의 난방의 단점을 개선하여, 미야자키 식 스토브(벽돌식 난로)를 발명하였고, 1909년(메이지 42년) 육군성의 특명으로 북한 지방에 군용 숙사를 축조하면서 숙사 내부에 이 난로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미야자키는 미야자키 식 스토브의 전매특허를 획득하고, 경성에 본점을 개설하고 한국과 만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다.(『京城市民名鑑』, 1923년)

29) 이 안내책자는 17,000부나 준비해 두었으나, 내람객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안내책자를 배포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하루 평균 200명, 하루에 최대 관람객이 방문하였을 때는 700명가량이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笹慶一, 『朝鮮博覽會出品住宅に就いて』, 『朝鮮と建築』, 제8권 제9호, p. 27.

30) 부대사업에 관한 협의사항은 『朝鮮と建築』(제8권 제3호, 1929년 3월, pp. 20~23)를 참고로 하였다.

[표 4] 출품주택의 도면작성 관여 인물

| 씨 명 | 소 속 |
|------|--------------------|
| 安井鎮平 | 하자마구미(間組) 기사 |
| 井上祐輔 | 시미즈구미(清水組) 경성지점 차장 |
| 野中延喜 | 타다구미(多田組) 기사 |
| 元田朝吉 | 조선식산은행 기사 |
| 江島 清 | 조선총독부 기사 |
| 木戶桂治 | 하자마구미(間組) 직원 |

건축활동을 하는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것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도면 작성을 의뢰한 후보자는 야스이(安井鎮平)³⁸⁾, 이노우에(井上祐輔)³⁹⁾, 노나카(野中延喜)⁴⁰⁾, 모토다(元田朝吉)⁴¹⁾, 에지마(江島清)⁴²⁾, 키도(木戶桂治)⁴³⁾ 회원이다. 출품 위원회나 계획위원회의 인적구성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들은 전원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이었고, 각 위원회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출품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인적구성

38) 합자회사 하자마구미 기사이며 조선건축회 이사.(조선건축회 회원명부 참고) 하자마구미는 일본 류슈모지(門司)에서 설립되어 철도관련시설을 담당하였다. 1903년 경부선 공사를 수주하여, 1905년 경성지점을 개설하였다. 이후 1909년 압록강 교량 가설공사를 맡은 바 있다. 1917년 합자회사로 변경하고, 조선을 비롯한 만주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39) 합자회사 시미즈구미 경성지점 차장으로 조선건축회 간사.(조선건축회 회원명부 참고)

40) 타다구미의 직원으로 조선건축회 간사.(조선건축회 회원명부 참고)

41) 조선식산은행 기사로 조선건축회 간사. 탁지부 건축소 기사로 임명되어 1910년 3월 한국으로 건너와 조선총독부 소속 기사가 되었다. 1919년 6월 조선식산은행에 입사하면서 본지점의 신축과 증축에 관여하였다. 1934년 기사로 승진하였다.(『朝鮮人事興信錄』, 1935년 판 참고)

42) 조선총독부 기사로 조선건축회 간사.(조선건축회 회원명부 참고)

43) 합자회사 하자마구미 직원으로 조선건축회 회원.(조선건축회 회원명부, 조선총독부 직원록 참고) 1913년 조선총독부 기사로 1928년까지 재직하였고, 이후 하자마구미로 옮겼다. 따라서 키도의 경우 하자마구미보다는 총독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건축역사연구 제17권 2호 통권57호 2008년 4월

에는 주택개선안의 이론적 배경을 담당할 인력이 없었다. 출품 위원 건설업체의 대표이거나 자재업 경영자 등이 있었고, 도면을 작성하는 실질적인 계획담당자도 대규모 건설 청부업체의 기사이거나 관공서 소속 기사였다. 건설업체의 경우, 주택 건설보다는 철도, 교량을 비롯하여 대규모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업체였다. 이러한 인적구성으로 미루어, 일본의 평화박람회에 출품하였던 아메리카야나 생활개서동맹회와 같이 주택 개선에 관하여 연구를 거듭해 왔던 인적구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박람회 이전, 조선건축회의 주택개선안에 대한 논의 역시 심층적으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개선에 관한 새로운 견해가 도출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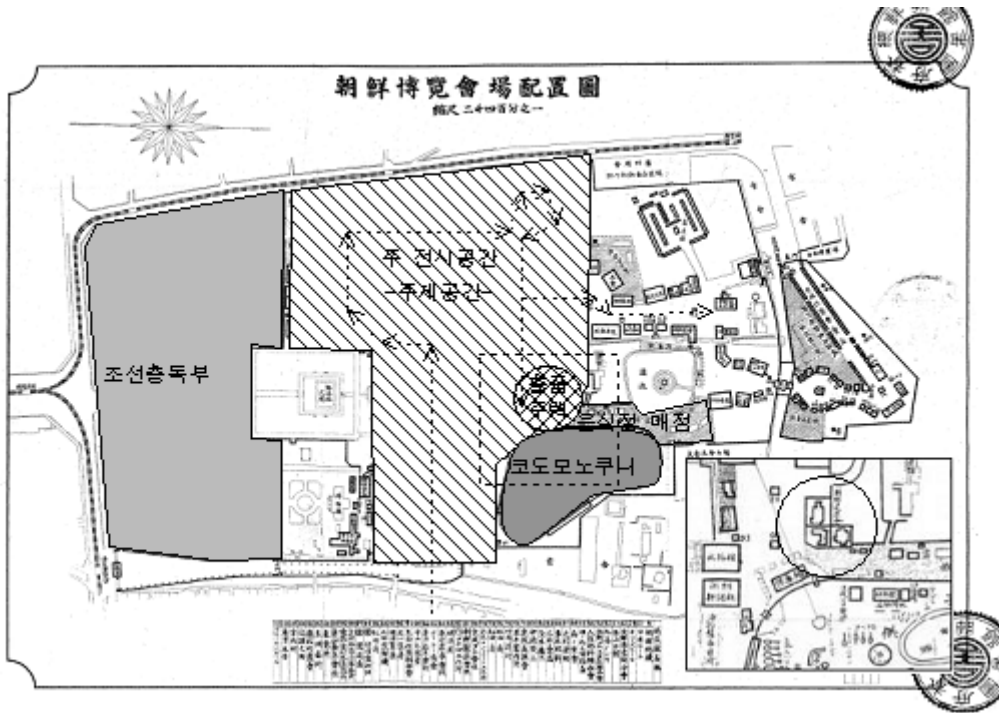
3-4. 출품주택의 전시면적과 장소

3체의 조선건축회 출품주택은 전체 조선박람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기 위해 출품주택의 전시면적과 장소를 살펴보자.

조선박람회가 주택 전시에 할당한 면적은 200평으로, 약 3체 혹은 4체의 주택이 들어설 넓이에 해당한다. 단위 전시관으로 300평 면적의 경기도관이나 200평의 전라남도관, 그리고 400평의 류슈관 등의 지방특설관보다도 작은 면적이다.⁴⁴⁾ 더욱이 평화박람회가 박람회장 총면적⁴⁵⁾ 11만5천 평에서 분카무라에 주택 14체를 세웠던 것에 비해, 조선박람회가 전체 9만평 면적에서 3체만을 건설하였다는 것은

44) 조선박람회에서 300평 이상 규모의 특설관은 경기도관은 315평, 전라남도관 200평, 류슈관이 400평, 오사카관 320평, 도쿄관 300평, 교토관이 211평, 타이완관 210평, 만몽참고관이 200평이었고, 기업특설관 중에서 200평이 넘는 파빌리언은 없었다. 참고로 주테마관인 산업남관과 산업북관은 각각1,070평, 775평이었다.

45) 평화박람회는 우에노 공원의 제일회장(44,925평)과 시노바즈(不忍) 연못 주변의 제이회장(69,650평)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5> 조선박람회 회장 내 출품주택 전시장 위치도
(출처: 『始政二十年記念 朝鮮博覽會 京城協贊會報告』)

조선건축회의 주택 출품이 전체 박람회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 박람회에서 출품주택이 차지하는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 주택이 전시된 장소이다. 출품주택이 전시된 곳은 주회장을 한 바퀴 돌아서 여흥공간이 시작되는 접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주회장에서 ‘코도모노쿠니(子供ノ國, 어린이 나라)’를 향하는 동선의 종점이자, 여흥공간과 음식점이 모여 있는 식당가의 진입로에 인접한 곳으로, 다시 말하면 박람회의 주제공간과 유희공간의 연결지점에 주택이 전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출품주택이 박람회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출품주택은 계몽이라는 박람회의 취지와 유희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다. 회장에서 위치는 전체 배치계획에 있어 각 파빌

리언의 성격을 가늠케 한다. 출품주택은 주택 개선에 관한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편,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상품 견본으로써의 성격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의 건축 계획적 특성

4-1. 지역성의 반영

온돌의 개선을 통해 전통적인 지역 양식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민지 건축계가

일방적으로 근대화의 모델을 이식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식민지 자체에서도 자발적인 근대화의 모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온돌실의 계획을 통해서 전통적인 ‘온돌’ 난방이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 평가하

고 있음도 보이는데,⁴⁶⁾ 단순히 온돌의 체난 기능성만이 아니라, 온돌의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난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기후와 달리, 겨울의 혹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온돌’이 주목을 받고 있고, 박람회 출품주택의 1개소에 배치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4-2. 평면계획에 있어서의 보수성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에 나타난 보수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건본주택은 좌식 생활을 계승하고 있다. 좌식생활의 비위생성을 들어서 의자식, 즉 입식생활을 계도하는 일본의 주택개선안과는 다르다. 일본의 주택개선안도 초기에는 ‘서양식의 모방’의 한계에서 벗어나 1922년 평화박람회에서 일부의 출품주택이 와시쯔(和室)를 설치하였다.⁴⁷⁾ 그러나 하나의 주택에 와시쯔와 서양실(洋室)을 병행하는 전례가 그때까지 없었다. 조선박람회의 출품 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이들 두 가지를 함께 병용함으로써 절충안의 시도를 보여 주었다.

둘째, 가족본위의 공간계획에서 거실의 중

요도가 높아졌으나, 조선박람회의 출품주택에서는 전통적인 평면구조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집객을 위한 서재를 겸한 응접실이 현관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어, 집객공간이 마련되었다. 제2호 주택에서 거실의 옆에는 츠키노마(次の間)가 연결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손님방(客間)이나 차노마(茶の間)⁴⁸⁾에 츠키노마가 연결하는 일본 종래의 주택 평면을 계승한 것으로, 실의 기능이 변한 것은 아니다. 즉, 3채 모두, 일본의 전통적인 주택의 평면을 따르고 있다.

셋째, 출품주택은 개실의 프라이버시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숙박도형은 위생상 주거실을 남쪽에 배치하고 북쪽에는 서비스실을 배치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각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것으로도 기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주택의 각실은 주사용자와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숙박도가 설치되었더라도 각실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특히 자시키(座敷)와 츠키노마 사이의 후스마 칸막이는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였으나, 주택개선안에서 언급되었던 프라이버시 확보에 관하여서는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4-3. 주택의 상품화 촉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5년 국민신문사의 가정박람회의 주택 건본이 계몽적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박람회를 통해서 주택이 상품으로써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박람회의 전시는 일본에서 주택개선안으로 주장되어 왔던 거실중심의 공간과 입식가구, 부엌의 설비 등이 중심이 되어 계몽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후 평화박람회(1922)는 주택의 실물을

46) 『朝鮮と建築』 제8권 제9호의 「조선박람회출품주택특집호(朝鮮博覽會出品住宅特輯号)」에 출품주택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게재하였는데, 그 가운데 조선총독부 철도국 공무과 건축계 소속의 토쿠야(徳屋勇三)는, ‘(제1호주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우선 온돌난방방식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며, 경제와 효율면에서 온돌난방은 이상적인 난방방식임을 보였다(まず温突暖房式の有用さをほめて、經濟且つ効率面で温突暖房は理想的な暖房方式であることを説いた)’라고 평가하였다. 『朝博出品の住宅を見て』, 『朝鮮と建築』 제8권 제9호, 1929년 9월, pp. 22~23)

47) 와시쯔는 타타미 바닥의 개실로, 좌식 생활을 전제로 한다. 참고로, 제1호주택의 타타미는 독특하게 코르크 타타미(麩)로 동경의 나가야나기永柳상점이 시공하였고, 제2호와 제3호 주택은 종래의 타타미로 제2호는 경성 쿠니야(國家)상점이, 제3호는 니노미야 이사무(二宮勇)가 타타미 시공을 담당하였다.

건축역사연구 제17권 2호 통권57호 2008년 4월

48) 차노마는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단위의 공간이다. 거실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다.

전시함으로써 주택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상품으로써의 주택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면, 동년 주택개조박람회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상품성이 짙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박람회(1929)의 경우는, 여흥공간에 인접한 출품주택의 위치가 갖는 위계와 성격에서 계몽성보다는 전시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출품기획과 출품과정에서 청부업체의 선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통해 박람회 출품주택의 상품성이 이전의 박람회 출품주택에 비해 농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박람회는 주택의 실물전시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박람회였다.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는 전국 규모의 종합 박람회에서 주택의 실물 전시가 사라지고, 주택지 개발에 선행하여 주택개조박람회와 유사한 선전 페어의 전람회 정도만 개최되었다. 그것은 계몽 성격의 주택 개선안이 충분히 확산되었으며, 한편으로 주택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의 주택지 개발과 선전 페어가 곳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5. 결론 : 식민지적 한계

이상을 통해서 조선박람회에 출품된 견본주택이 당시의 주택개선안을 선택적으로 혹은 절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건축계획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박람회 출품주택의 흐름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의 지역성과 상품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박람회의 출품주택은 식민지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첫째, 중류가정의 주택을 기획하였으나, 실제로 재조선일본인 가정이 주택 모델로 상정되었다. 조선박람회는 경술국치 이후 20

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미 일본식 생활양식은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확산, 자리 잡고 있었으나, 당시 한국인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출품주택 3채는 모두 일본의 전통적인 가옥 평면 형식을 따르고 있어, 피리를 짐작케 한다.

둘째, 출품주택의 공사비 면에서도 한국인은 배제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 내무국 소속의 시계무라 요시카즈重村嘉一가 언급한 것처럼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었다.⁴⁹⁾ 3, 4년의 시간차는 있지만 조선박람회 이후 발표되었던 박길룡의 소주택안을 보면, 20평 안팎의 주택에 온돌실로 계획되고 공사비는 1,500원에서 2,000원 안팎이었다. 박람회에서의 출품이기 때문에 선진적인 재료와 기술의 사용함에 따라 공사비가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안이었다.

조선박람회의 출품주택은 폐회 후에 이축하여 주택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전람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폐회 후 실제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의 리얼리티를 구현해 내었다. 그러므로 기획력에서 앞선 두 박람회의 출품주택보다 선진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출품주택의 다양한 건축적 측면을 조명한 결과, 조선박람회에서 한국인은 타자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9) 重村嘉一, 「出品住宅を見て」 『朝鮮と建築』 제8권 제9호, pp. 27~28. 그밖에도 당시 경성의 유지였던 히라야마 목장(平山牧場)의 경영주였던 平山政十도 「建築會の出品住宅を觀て」(朝鮮と建築, 제8권 제9호, pp. 29~30)를 통해서 중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사금액이라고 평가하였다.

24 논문

<참고문헌>

1. 朝鮮と建築 제8권 제9호/제10호, 1929년 9월/10월.
2. 住宅(일본 住宅改良會) 제7권 제3호/제4호, 1922년 3월/4월.
3. 始政二十年記念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報告書, 1930년
4. 朝鮮人士興信錄, 1935년판(日本人物情報大系74참고)
5. 京城市民名鑑, 1922년판 / 1923년판.
6. 김정아. 일제시대 주택 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년.
7. 金珠也. 日帝強占期の建築団体「朝鮮建築會」の機關誌 朝鮮と建築 と住宅改良運動に關する基礎的研究. 京都工芸纖維大學 박사학위논문, 1998.
8. 안성호, 김순일. 「1930년대 한국 근대주택에 나타난 속복도형 일식 주택의 영향: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 개량안과 朝鮮と建築에 수록된 주택평면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6권 제2호(통권12호), 1997년 6월.
9. 우치다 세조(内田靑藏), 「建築學會の活動からみた大正11年開催の平和記念東京博覽會文化村に關する一考察」.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제529호, 2000년 3월.
10. 禹東善. 「科學運動과의 關聯으로 본 朴吉龍의 住宅改良論」.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5호(통권 151호). 2001년 5월.
11. 안성호. 「일제 강점기 주택개량운동에 나타난 문화주택의 의미」.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제5호, 2001년 11월.
12. 쿠리하라 요코(栗原葉子), 「「住まい」と「家庭」思想:明治後半から大正期を中心として」. 多元文化, 제3호, 2003년 3월.
13. 이경아, 전봉희. 「1920년대 일본의 문화주택에 대한 고찰: 1922년 평화기념동경박람회 문화촌과 문화주택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권 건축역사연구 제17권 2호 통권57호 2008년 4월
- 8호(통권 202호). 2005년 8월.
14. 박진희. 「일제하 주택 개량 담론에서 보여지는 근대성」. 담론201, 제7권 제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5년.
15. 서귀숙. 「1929년 조선박람회 출품주택 개최경위 및 평면 고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제3호, 2005년 6월.

A study o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Exhibited Houses at the Choseon Exhibition(1929)

- Focused on the Relationship of Exhibited Houses in Japan -

Chung, Soon Young

(Ph.D Researcher at IIS, the University of Tokyo)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ree houses of Choseon Exhibition. Exposition/exhibitions were thought to be a model for the world. It shows the real status of the development, and thinking with visions at that times; therefore, exhibited house models would be a good source for what to be considered for the ideal houses of that times.

Through the study, we could find out as follows.

1. The houses exhibited conserved the sitting-on-floor living style, otherwise the most proposals for house improvement suggested a chair-and-table style because of its hygienic quality and integration of the life at home and at work(school, too).

2. The spacial scheme for-family prior over for-guest was emphasized, but models at the exhibition were structured with Japanese traditional spacial program, such as Jashiki(座敷), Kyakunoma(客の間) or Tsuginoma(次の間), which were all Tatami-floored.

3. Through this exhibition, it is clarified that the architectural society in colonial Korea also tried to improve the modern housings, not only direct reception of the developed proposals. These houses was planned with the acceptance of the locality, such like Ondol, a floor heating facility which the Japanese engineer improve the efficiency.

4. Also these exhibited houses became a start to recognize a house as a product, and spurred on commercialization.

As the result, we could find out that these exhibited houses accepted the modern housing proposals selectively, and that even if the exhibitions shows the advance in usual these houses were planned with the very conservative notions.

Keywords : Choseon Exhibition, modern housing, housing improvement, exhibited house, exhibition
